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정보의 공동관리 추진

통신서비스 요금 연체·미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 신용불량정보를 집중하고 사업자는 가입자 유치 동 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악성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자의 전산망에 등록하여 각종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 함으로써 신용정보공동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최 영 찬 /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사무관

개 요

통신서비스 요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하거나 미납하는 이용자는 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게 된다. 통신사업자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통신서비스 요금 연체·미납자 등 신용불량자는 통신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악성 신용불량자는 한국신용정보(주) 등 신용정보업자의 전산망에 등록하여 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등 신용거래에서도 제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통신요금 체납,

미납에 대해 업계가 공동으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PCS 3사가 '98.8월부터 공동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자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추진 배경

사실 그간 통신시장에서의 요금 연체·미납은 통신사업자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98.5월까지의 미납채권 총액이 7,237억원에 달하는 등 연체와 미납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영이 크게 악

통신요금 연체·미납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	유선전화
총미수금 1)	7,237	1,593	1,621	223	3,800
체납액(A)2)	2,356	817	508	54	977
체납액(B)2)	41,130	15,346	5,610	1,065	19,109
체납액(A)(B)1)	5.7	5.3	9.4	5.1	5.1

※ 주1) 은 '98.5월까지의 미수채권 누계총액이며
주2) 는 '98.1~5월의 체납액, 매출액

화되어 왔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매출은 발생했는데 수금이 되지 않으므로 자금 운용에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공짜장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더구나 발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많다.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 매년 약 3%의 연구개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며 법인세도 내야 하는 등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요금 연체·미납자에게 요금납부를 독촉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사업자의 부담은 요금 등에 전가되어 결국은 건전한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게다가 통신사업 경쟁 도입으로 사업자수가 많아진 것을 틈타 사업자간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요금을 연체하는 암채 가입자도 생겨나는 등 그간의 통신 이용문화는 통신시장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자는 사실 통신사업자가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에 직면한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보를 최우선적 정책으로 하여 가입자의 요금 납부능력 여하를 막론하고 외형 부풀리기에만 주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양적 성장에는 성공하였지만 거품으로 매도당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대책을 전혀 강구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장기간 요금을 연체하는 고액 미납자에 대해서는 NICE로 잘 알려진 한국신용정보(주) 등의 신용정보업자 전산망에 등록하여 각종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기도 하였으며 가입시 보

증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연체·미납 요금에 대한 안장장치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요금의 연체·미납에 대한 이러한 사후적이고 개별적인 대처방법은 효과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 통신사업자로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실제로 '98.7월 현재로 신용정보업자와 신용불량정보 등록·이용계약을 체결한 통신사업자는 23개에 이르는 반면 등록건수는 6만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더구나 최근의 경제위기와 겹쳐 요금 연체·미납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따라서, 미봉책이 아닌 통신요금 연체·미납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사실 그간 통신요금 연체·미납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없었다.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 공동관리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종 업계의 신용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필요하며 '97.1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비로소 통신서비스 신용정보의 공동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만 한다. 그간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금융업계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하나 뿐이었으나 올해 4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통신업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을 마쳐 현재는 2개로 늘어난 상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됨으로써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우선 PCS 3개사가 동 협회

를 통한 신용정보 공동관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미납문제는 비단 PCS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대책회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전 통신분야의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

이번에 통신사업자들이 합의하여 확정된「통신서비스 신용정보 공동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서비스 요금 연체·미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 신용불량정보를 집중하고 사업자는 가입자 유치시 동 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악성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자의 전산망에 등록하여 각종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 함으로써 신용정보 공동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신용정보 공동관리 시스템은 협회가 주관이 되어 협회내에 구축하며 업종별로 신용불량정보의 기준을 정하여 DB를 구축하게 된다. 여기에는 이동전화 5개사, 무선호출 13개사, PC통신·인터넷 14개사 등 총 32개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며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의 유선전화 사업자는 신용불량정보를 제공만 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에는 약 5억원, 연간 운영비는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투자비는 각 업종간 사업자들이 분담하게 되며 운영비는 조회수수료로 충당하되 그 수준은 최대 70원 정도가 예상된다.

운영조직으로는 협회내에 「신용정보 공동관리위

원회」를 두어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동 시스템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신용불량정보 및 실명·주소확인 정보를 집중하고 신용불량정보는 경미, 악성 2등급으로 분류하여 악성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업자의 전산망에 등록하여 금융거래, 백화점 거래 등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참여사업자는 가입자 유치시 반드시 동 시스템을 조회하여 통신요금 연체·미납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불량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입이 되지 않도록 각 사업자의 시스템을 수정함으로써 공동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체납요금의 납부 등 등록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98.8월초 업종별로 추진팀을 구성하여 업종별 「신용정보 공동관리·교환 규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98.8월중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98.12월에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으로 있다. '98.12월 동 시스템이 개통되면 무선호출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의 신용불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등 업종간 신용정보의 조회도 가능하게 된다.

기대 효과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업자들이 추진하는 「신용정보 공동관리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통신사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불만에서부터 여러가지 거래제한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심정적인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업자 측면에서는 가입유치 단계에서 신용을 판단하여 신용불량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악성 신용불량자에 대한 거래제한으로 채권추심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미납채권으로 인한 비용소모를 줄여 자금부담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뿐아니라 무분별하게 가입자를 유치하여 외형만을 키우는 영업행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건전한 신용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 통신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납채권의 감소로 사업자의 경영이 호전되면 결국 요금인하 또는 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등 이용자 부담 감소와 서비스 이용편이 증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이 중요해지는 사회

기존에 유행병 처럼 번진 은행들의 부실화는 부실채권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그 원인이며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여신 신청기관에 대

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들은 여신심사에 정밀한 기업평가를 도입하고 있으며 신용평가기관의 업무영역이 기업신용평가 방으로 크게 확대되는 등 신용평가 기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더구나 국민들의 과소비와 파산위험성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오던 신용카드의 과다 소유 및 연체 등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회사들도 연체·미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타사 신용카드 대금 연체 자들에 대해서도 가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던가, 각종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금을 연체하는 자는 사회생활의 유지조차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각박한 사회로 변해 간다며 자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지만 건전한 경제는 정당하고 정직한 계약과 공정한 계약이행 위에 기초한다는 것을 되돌아본다면 신용사회로 들어가는 이제 경제주체 누구나가 신용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

CATV를 이용한 인터넷정보검색사 TV강좌

협회는 인터넷 이용 저변확대와 인터넷정보검색사 인증시험을 대비한 원격 교육프로그램으로 CATV를 이용한 TV강좌를 지난 98.8.31부터 MY-TV를 통해 방송에 들어갔다.

오는 '98. 11월8일까지 방영될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일반과정" 월.수.금, "인터넷1급과정" 화.목.토 등 각 40분간씩 연 8주간 24회 걸쳐 진행되는데 평일은 08:00, 18:00, 23:30부터, 일요일은 그 주의 3회 전교육과정이 연속으로 재방송된다.

특히 10월 26일과 10월 31일은 인터넷 정보검색사 시험에 대비한 문제풀이 중심의 전과정을 총정리해서 방송된다. 한편 인터넷 TV강좌 일반과정, 1급 과정 교재는 전국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